

01 목회권면

풍성한 이 가을에 어느 자리에서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영적 열매를 맺도록 신앙 및 기도 생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02 주일 낮예배

오늘 1·4부 예배 말씀은 박순영목사, 2·3부 예배 말씀은 윤여권목사(양동제일교회원로)께서 전해드립니다.

03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안내

10월7일 오후7시 수요일예배와 10월10일 토요일 새벽예배가 현장예배로 재개됩니다.

04 온라인 교회학교

- ① 유치부: 카카오톡(오전 11:30)
- ② 초등부: 어플 ZOOM(줌, 오전 11시)
- ③ 중고등부: 어플 DUO(듀오, 오전 9시)
- 실시간 예배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05 예배 안내

수도권 지역 교회에 예배 참석자 자격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본 교회에서는 예배실 300석에 50명 미만 참석 규정을 잘 지키며 철저한 방역수칙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 교회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발열, 기침, 인후염) 유무를 확인
-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
- 단체식사금지, 공식예배 외에 소규모 모임 금지
- 예배 전, 후로 소독과 방역작업 강화

06 온라인현금

온라인으로 현금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십일조, 감사, 건축헌금 등 현금 종류의 첫 글자와 성함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십-홍길동, 감-홍길동, 선-홍길동, 주-홍길동
*온라인 현금 계좌 안내 :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07 온 교인 한 마음 성경 필사

코로나19 극복과 예배 회복을 위하여 11월 30일(월)까지 온 교인 한마음 성경 필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주위에 계신다면 권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2.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을 위하여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전도사	김상태, 장중현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반주자	김범준, 김슬기, 박은영, 하은미

10월 4일
7권 40호

*여는 찬양	주 기도문		
*예배 선포	인 도 자		
*찬 송	9장		
*공동기도문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찬 송	43장		
기 도	한옥희 권사	이선옥 권사	최영식 집사
교 회 소 식 새가족환영	인 도 자		
성 경 봉 독	왕상 3:3-10	벤전 3:8-9	
	손막동 집사	노미정 집사	조미애 집사
찬 양	한경민 집사	윤경민 집사	강신모 집사
오늘의말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축복 받은 인생을 누리라”	
	박순영 목사	윤여권 목사	
봉 헌	50장		
*친 교	다 같 이		
*송 영	진리와 생명되신 주(630장)		
*축 도	윤호식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1시

주 일 4 부 예 배		
찬	양	 십자가 그사람
기	도	 최희원
성	경	 왕상3:3-10
설	교	 박순영목사
축	도	 박순영목사

오후7시

찬	양		찬	양	팀
신	양	고 백		사	도 신 경
성	경	봉 독	···롬3:5-8···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은	참되시다	윤호식	목사
찬	송	435장·····	다	같	이
축	도		윤호식	목사	

제 목: “깨뜨리심”(욥기42:1)

성경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에서 떠난 자라는 평을 들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시련이 고난을 뒤보자로 하나님께 이어집니다. 과연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가 그대로일지 지켜보자는 말입니다. 결국, 욥은 자신이 잘못된 것도 없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몸매 병까지 얻게 됩니다. 큰 고난으로 인해 욥은 망한 것 같았고 감당하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욥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얻는 것이 많게 됩니다. ♣욥 23:8-9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여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거나 뵈 수 없구나” 고난이 오니 정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욥23:10”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귀한 존재로 태어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볼 때 괜찮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화려한 프로필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조건을 가진 바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다른 계획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행9:15-16”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자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울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부수셨습니다. 그의 자아와 그릇된 신념을 깨뜨리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자기 안에 있는 고집덩어리를, 살기등등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도공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그릇을 깬다.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빚고 칠하고 굽고 완성하는 그 과정에서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깨고 깬다. 그리고 원하는 작품을 얻습니다. 수많은 깨어짐이 있었기에 작품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작품은 한 작품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 나옵니다. 깨어짐은 분명히 상처와 아픈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깨어짐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어짐의 고통이 힘들어 깨어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깨어짐을 통해 나오는 기쁨과 영광을 일기에 깨어짐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반드시 당신의 손을 쓰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깨어짐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저항하기도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상처와 고통이 수반되는 하나님의 손쓰심은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 앞에는 어떤 반항도 분노도 고집도 없어야 합니다. 깨어짐의 은혜는 우리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소리를 귀담아들기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깨어짐은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짐은 늘 현재진행형입니다.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지속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고전15:31”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욥42:5”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보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려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 심일조

강예식 국영숙 김학수 박인순 박장금 석용문 송길선 송의자 윤호식 이종구 장재욱 정순희 정영규 정유진 정진숙 조미애 조영호 차덕조 채석진 최진호 한옥희 홍은표 황인순 무 명

■ 감사헌금

강대의 강예식 강용중 강인환 고동환 국영숙 권경자 권영숙 김성욱 김영춘 문다윗 문명숙 문성우 문지연 송길선 엄만유 오현애 윤선래 이덕수 이복순 이은실 이향실 이혜숙 장정숙 정진숙 조웅순 조은선 채석진 하나경 하상호 한옥희

■ 선교헌금

강예식 복 희 송길선 이종구 정명희 정진숙 홍은표

■ 주정헌금

김귀근 김만수 김지영 모영자 변성진 손막동 엄만유 윤동섭 윤옥숙 이원규 이종부 이혜숙 제언희 조근석 조영호 차금미 최경란 최영식

■ 일천번제

임재명

■ 장학헌금

변성진

온라인헌금안내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예) 심일-홍길동, 감사-홍길동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손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일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얼마 건강과 신앙회복 불쌍히 여겨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 지켜주세요. 동생 항상 건강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니는 회사에도 축복해 주세요. 주님 건강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를 준 모든 일을 회개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남은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반기도 지켜주신 하나님 하반기도 동행하여 주세요.

■ 지 난 주 등 록

■ 2020년도 등록자

신주희	박석민	이미정	김지영	김일근	장상민
최병주	윤미란	김완수	이향호	변춘식	조하나
심주원	진미숙	손미정	김성호	홍성인	
남기해	이원규	심은숙	이응창	정희숙	

주일 4부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오후1시/본당)

1. 월례회 및 각종 모임

각종 부서 월례회 및 모든 종류의 모임을 중단합니다. 특별한 자침이 있기 전까지 공모임 뿐 아니라 교회 내 친교 모임 또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